

기본급 159,800원 인상! 금속산업최저임금 확장!
안전보건확보의무 쟁취!



지부교섭 속보

12호

2024.08.23(금)

□발행처:교육선전부 □발행인:권현구 □주소:충북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2018 무진빌딩 8층 □전화:043-236-5077 □http://dc.kmwu.kr

[12차 지부교섭 : 사측 4차 제시안 제출]

사측 교섭위원 교섭 도중 퇴근!?

4시간 교섭 중에 한은 사측 교섭위원 돌연 퇴근, 의견접근 실패



4시간의 노력

12차 교섭은 노사 모두 의견접근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기로 의지를 모으고 시작했다. 축소교섭을 통해 4시간이 넘도록 의견 차이를 좁히기 위해 노력했다. 노측 교섭위원들은 장시간 교섭의 성과를 무위로 돌리지 않기 위해 막판에 통크게 양보하며 의견접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다.

한은 사측 교섭위원 돌연 퇴근!

그런데 마지막 조율을 위한 축소교섭에 한은 사측 교섭위원이 보이지 않았다. 다음날 있을 울산

사내하청지회 파업 때문에 퇴근했다고 한다. 교섭 도중 사측 교섭위원이 퇴근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고, 결국 퇴근한 한은 사측 교섭위원의 반대로 교섭이 무산됐다. 수십명의 노사 교섭위원들의 4시간 넘는 노력이 모두 한순간에 물거품이 됐다.

교섭 파행 책임져야 할 것

사측 교섭위원 퇴근이라는 사상 초유의 일로 의견접근이 무산됐다. 이후 발생할 상황은 사측이 자초한 것이다. 사측 교섭위원들은 교섭파행으로 벌어진 사태를 책임져야 할 것이다.

12차 교섭 속기록

교섭 중에 어디 갔나? 이게 말이 되냐?

사 : 어제 저녁에도 적지않은 비도 내리고 오늘도 비왔지만 아직도 무더위다. 오늘 편안하게 대화 나누고 좋은 결과 얻길 바란다.

노 : 올해 유난히 교섭일에 휴일이 많다. 그래서 사측이 논의할 생각이 많다고 생각했는데 지지부진해서 유감이다. 오늘 교섭 전에 진천 바커케미칼이라는 회사에 다녀왔다. 요즘도 용역강패 동원하는 악질회사가 있어서 연대하고 왔다. 우리 지역 사용자들은 올해 임단협 신경써서 불미스러운 일 없도록 노력해달라. 오늘 제시안에 대해 기대해도 될지 모르겠다. 준비한 제시안 있으면 제시해달라.

<사측 4차 제시안 제출>

<14:35 축소교섭 돌입> <18:50 축소교섭 종료>

노 : 한은 교섭위원은 어디 갔나?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지부교섭이지 뭐냐? 어디서 저판 사람이 교섭 들어와서 말이야! 어떻게든 마무리하려고 이 시간까지 교섭위원들이 다들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이게 말이 되냐? 오늘 이후 일은 전부 사측 교섭위원 책임이다. 오늘 행동 책임져야 할거다. 우리 일정대로 투쟁 들어가겠다.

사 : 나름대로 최선 다하고 있다. 지부가 양보한 부분 알고 있다. 일주일만 시간 더 달라.

노 : 다음주 교섭 한은에서 하자. 무조건 한은으로 갈테니 그렇게 알아라.

종료 : 18시 52분

<8/22(목) 교섭위원 공동실천 11차>

**바커케미칼 파업투쟁 승리! 노조파괴 분쇄!
민주노총 충북본부 결의대회**

